

단원 김홍도 筆 <三公不換圖> 연구

-1800년 이후 김홍도 회화의 변화와 간재 홍의영-

조지윤*

- I. 머리말
- II. <삼공불환도>의 분석 - 화풍과 도상, 제발
- III. 김홍도의 새로운 후원자, 홍의영
- IV. 후원자 홍의영과 김홍도 말기 화풍의 변화
- V. 결론

I. 서론

1801년 한 폭의 큰 병풍이 그려졌다. 4m가 넘는 큰 병풍에 송대(宋代) 시인 대복고(戴復古)의 시 「조대(釣臺)」에 나오는 구절로 제목을 삼고, 후한(後漢) 중장통(仲長統)의 「낙지론(樂地論)」을 제발로 쓴 <삼공불환도>(도1)는 김홍도 말기의 대표적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작품에 대해 김홍도 후기의 풍속화와 산수가 융합된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으로 평가되어 왔다.¹

또한 <삼공불환도>가 중요한 것은 1800년 이후 김홍도의 화풍에 큰 변화가 생긴 시점에 그려진 작품인 동시에, 지금까지 주제로 잘 쓰이지 않았던 「낙지론(樂地論)」을 그렸으며, 이 회사(繪事)의 내용을 기록한 간재 홍의영의 제발이 등장하고 있어 그림의 제작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1801년이라는 기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800년 정조(正祖, 1752~1800, 재위 1776~1800)의 갑작스런 죽음과 순조(純祖,

* 삼성미술관 Leeum 책임연구원

¹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일지사, 1999), pp. 194~195.



도 1 김홍도, <삼공불환도>, 1801년, 견본담채, 133.7×418.4cm,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1790~1834, 재위 1800~1834)의 즉위, 정순왕후(貞純王后, 1745~1805)의 수렴청정 등 일련의 격변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려진 대작이기 때문이다. 홍의영의 제발을 살펴보면 김홍도는 이 당시 <삼공불환도> 외에도 <신우치수도> 2폭, <화훼영모도>를 더 그렸다. 이 중에서 <삼공불환도>는 당시 작품을 주문했던 사람들 중 가장 낮은 직책의 인물이 가져갔던 작품이었다. 즉 1801년 김홍도가 <삼공불환도>를 그렸던 일은 김홍도의 생애에 있어 손꼽힐만큼 큰 “주문”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공불환도>의 제작 양상과 관련하여 본고(本稿)에서는 먼저 간재 홍의영(良齋 洪儀泳, 1750~1815)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홍의영은 이인문, 김득신 등 당시 여러 이름난 화원들과 친밀한 교유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들의 그림에 많은 화제(畫題)를 써 주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그는 김홍도의 작품에도 제발을 남기곤 하였다. 그런데 홍의영과 김홍도가 교류한 시점이 1800년 이후 김홍도 말년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과연 1800년 이후 김홍도와 홍의영은 어떤 인간적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김홍도와 홍의영의 친분 관계는 김홍기 말기 화풍의 변화와 어떤 관련성이 있었는가? 본고에서는 <삼공불환도>의 화풍과 도상적 특징을 중심으로 그림의 제작 배경 및 김홍도 후반기 화풍에 홍의영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비단 <삼공불환도> 뿐만 아니라 김홍도 말기의 대표작들로 남아 있는 다른 여러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김홍도 말년기를 재조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김홍도 후반기 회화의 특징과 화풍 변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II. <삼공불환도>의 분석 - 화풍과 도상, 제발

1. <삼공불환도>의 내용과 도상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삼공불환도>의 제작 양상과 내용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공불환도>가 제작된 배경은 1801년 12월 순조가 수두에 걸렸으나 다음날 쾌차하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유후 한공의 주도로 김홍도로 하여금 계병을 만들도록 한 일이다. 당시 제작된 계병 중 유일하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 <삼공불환도>이다. 제작 경위에 대해서는 작품 좌측 상단에 홍의영이 남긴 글과 뒤이어 쓴 「낙지론(樂地論)」이 있어 그 전모를 알 수 있다(도2).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01년 겨울 12월에 임금(純祖)이 수두(水痘)를 앓았으나 다음날로 병이 나으니 온 나라가 기뻐하였다. 유후(留後)인 한공(韓公)이 계병(禊屏)을 만들어 요속(僚屬)들에게 나누어주었으니 대개 이전에 없었던 경사를 기억하고자 함이다. 한공과 나는 「신우치수도(神禹治水圖)」를 가지고, 총제(摠制)는 「화훼영모(花卉翎毛)」를, 주판(州判)은 「삼공불환도(三公不換圖)」를 가지기를 원했으니 제각각 취향대로 얻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림이 완성되자 중장통(仲長統)의 「낙지론(樂志論)」을 썼는데, 그 글을 취해 그림에 쓴 것은 또 그 좋아하는 바를 완성하고, 중장통의 낙지론과 단원의 그림의 (의미를) 저버리지 않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간재 홍의영이 단원의 「삼공불환도」에 쓰다.

만약 거처하는 곳에 좋은 밭과 넓은 집이 있다면 산을 뒤로 하고 물은 앞으로 한다. 연못을 둘러 만들고, 대나무를 두루 심으며 채마밭은 앞에 만들고 과수원은 뒤에다 만든다.



도 2 <삼공불환도> 세부 - 제발.

배와 수레는 걸어다는 고생을 대신하고, 심부름하는 아이는 온 몸이 움직이는 일을 그쳐 준다. 맛있는 반찬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처자식은 몸을 고생시키는 수고로움이 없다. 좋은 벗이 갑자기 오면 술과 안주를 내어 그를 기쁘게 하고, 좋은 때와 길일에는 염소나 돼지를 잡아 대접한다. 동산을 거닐다가 숲에서 놀고 맑은 물에 몸을 씻고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헤엄치는 잉어를 잡고 높이 나는 기러기를 잡는다. 무우 아래서 바람을 쏘이고 높은 집으로 노래 부르며 돌아간다. (규방에서 정신을 편안히 하고 노자의 현묘한 도를 생각하고, 정신을 호호하다가 지인(至人)과 같이 되고자 한다). 도에 통달한 서너 명과 더불어 도를 논하고 책을 강론하며, 하늘과 땅을 올라다 내려다보면서 고금의 인물을 종합 평가한다. 「남풍(南風)」의 우아한 곡조를 타고, 청상(淸商)의 오묘한 곡을 연주한다. 한 세상의 위에 소요하면서 인간세상을 아래로 본다. 당시의 책임을 말지 않고, 길이 성명을 보존한다. 이와 같이 한다면 하늘을 넘고 우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니 어찌 제왕의 문으로 들어가기 부러워하겠는가?²

본 제발을 통해 <삼공불환도>가 대북고의 시 「조대」를 제목으로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낙지론」을 주제로 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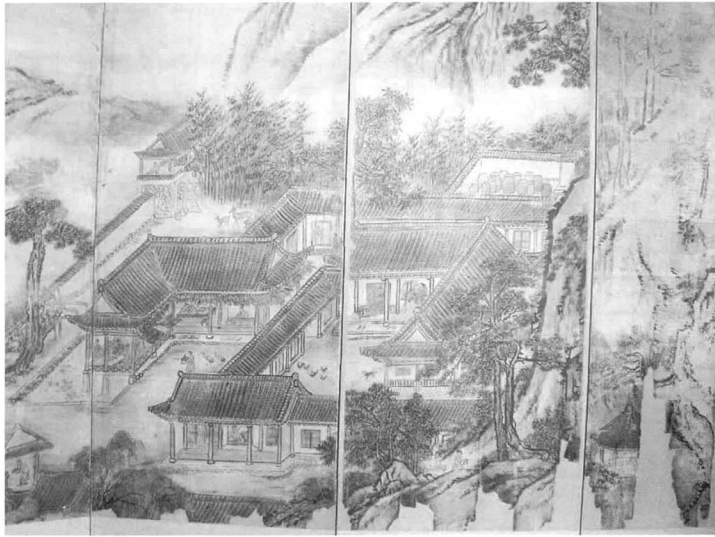
홍의영이 언급한 것과 같이 <삼공불환도>에는 「낙지론」과 관련된 모티프가 상당수 존재한다. <삼공불환도>는 “좋은 밭과 넓은 집”, “배산임수”의 구도를 취하고 있으며, 집 안에는 연못이 있고, 뒤편에 대나무 숲이 보인다(도3). 집안에 시종과 일하는 인물들이 두루 있으며, 집 밖 원경에는 배의 돛을 그렸다. 이외에도 벗들과 노는 장면,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낚시하는 장면, 기러기를 완상하는 장면, 규방에서 명상하거는 쉬는 모습들은 모두 「낙지

2 원문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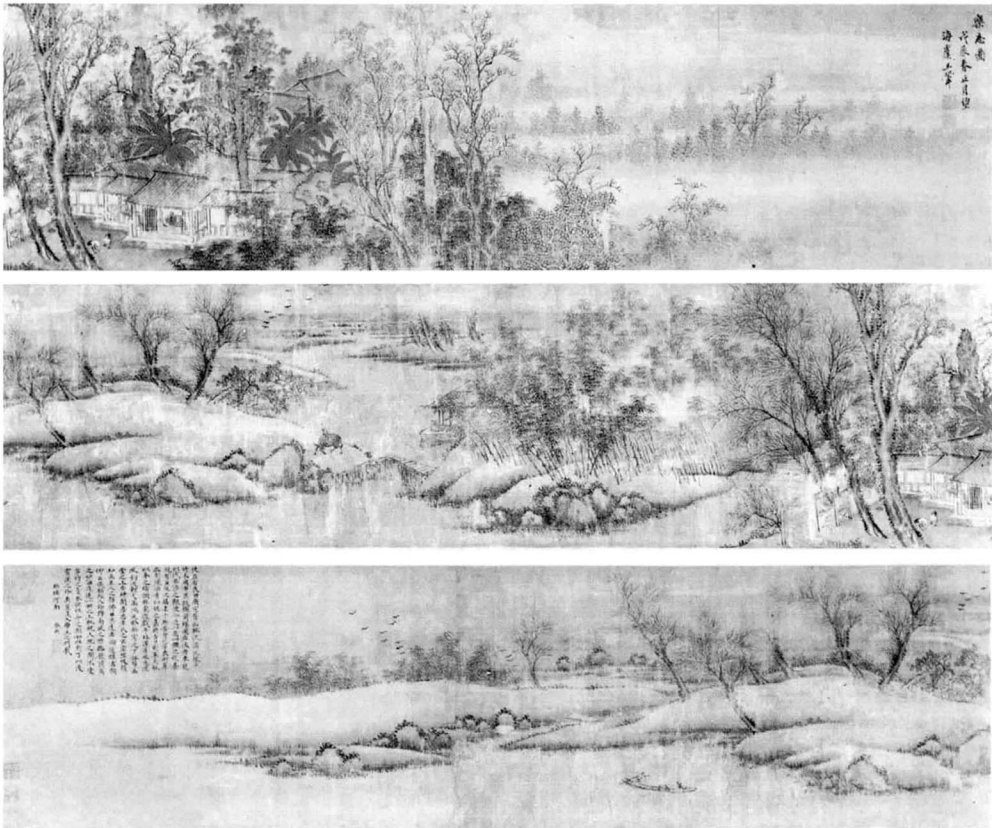
辛酉冬十二月, 玉候水痘, 翌瘳, 八域欣忭. 留後韓公作襖屏, 分于僚屬. 盖識曠前之慶也. 韓公及余得神禹治水圖, 摠制得花卉翎毛, 州判願爲三公不換圖, 各取其好也. 圖既成, 遂題仲長氏樂志論, 取其語於副於圖, 且期成其所好, 無負仲長之論, 檀園之畫也. 良齋題于檀園三公不換圖.

使居有良田廣宅, 背山臨流, 溝池環匝, 竹木周布, 場圃築前, 果園樹後. 舟車足以代步涉之難, 使令足以息四體之役. 養親有兼珍之膳, 妻孥無苦身之憂. 良朋萃至, 則陳酒肴以娛之, 嘉時吉日, 則烹羔豚以奉之. 躊躇畦園, 遊戲平林, 濯清水, 追涼風, 釣游鯉, 弋高鴻. 風於舞雩之下, 咏歸高堂之上. (安神閨房, 思老氏之玄虛, 呼吸精神, 求至人之彷彿. 與達者數者子) 與高士數人, 論道講書, 俯仰二義, 錯綜人物, 彈南風之雅操, 發淸商之妙曲. 逍遙一世之上, 睥睨天地之間, 不受當時之責, 永保性命之期. 如是則可以凌霄漢, 出宇宙之外矣. 豈羨夫入帝王之門哉.

「낙지론」번역 중 괄호를 친 부분은 홍의영의 제발에는 없으나 원문에는 있는 것이다. 제발의 해석은 임재완 역주, 삼성미술관 Leeum 학예연구실 편집,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古書畫 題跋 解說集』, 삼성문화재단, 2006, pp. 38~41 참조.



도 3 <삼공불환도> 세부 - 집안.



도 4 王暉, <樂志圖>, 1688年, 絹本담채, 21,0×198,0cm, 首都博物館

론」의 내용과 부합한다. 그런데 대북고의 시 「조대」를 그렸거나 「낙지론」을 주제로 한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중국의 경우에도 「낙지론」은 자주 그려지는 주제가 아니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그림은 1688년 왕휘(王翬)가 그린 〈낙지도(樂志圖)〉(首都博物館, 도4) 정도이며, 조선의 경우에도 후대 안중식이 「낙지론」을 그린 것을 제외하면 거의 남아있는 작품이 없다.

2. <삼공불환도>에 나타난 화풍과 도상의 변화

현재까지 김홍도는 40세를 기준으로 전반기와 후반기 화풍으로 나뉜다.³ 김홍도 후반기 화풍은 부드럽고 완만한 필선, 배경을 과감히 생략하여 주제를 돋보이게 하는 생략법 등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그의 화풍을 보면 이런 면들이 잘 나타난다. 또한 대부분의 작품에서 보이는 생략법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요소이다. 1795년작 〈풍속도팔첩병(風俗圖八疊屏)〉(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해암타어(海巖打魚)〉(도5)에 보이는 구불구불한 바위 묘사나 〈선상관매도〉나 〈마상청앵도(馬上聽鶯圖)〉(간송미술관 소장, 도6)와 같이 배경을 생략하고 주제만을 부각시키기는 화법은 김홍도 후기 화풍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1800년 이후 김홍도의 화풍은 큰 변화를 보이게 된다. 느슨하고 여유로운 선을 바탕으로 경물의 과감한 생략을 통한 넓은 공간감의 묘사에서 벗어나 여백보다는 강하고 거친 선을 바탕으로 한 짜임새 있는 경물의 구성이 나타난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1800년 이후 알려져 있는 김홍도의 주요 기년작(紀年作)은 <삼공불환도>(1801년)를 비롯하여, <주부자시의도(朱夫子詩意圖)〉(1800, 도7), <기로세련계도(耆老世聯契圖)〉(1804, 도8), <추성부도(秋聲賦圖)〉(1805, 도9)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작품 모두 공통적으로 여백이 줄어들고 거칠고 힘있는 선들을 사용하는 등 1790년대 김홍도 후반기의 작품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주제를 중시하는 기존의 작화태도를 벗어나 배경이 되는 경물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1796년 작 <서성우렵(西城羽獵)〉(도10)과 1800년 작 <주부자시의도(도7)〉를 살펴보자. 두 작품의 시간적 간극은 불과 5년이 되지 않으며, 똑같이 정조에게 바친 그림이지만 화면에 표현된 화풍은 큰 차이를 보인다.⁴ <서성우렵>에 나타난 경물의 배치 모습을 살펴보면 대체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간략화하는 생략법이 특징이다.

³ 김홍도 화풍의 변화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전기와 후기로 나누고 있다. 대표적으로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일지사, 1999), pp. 13~71.

⁴ 실제로 <주부자시의도>는 1800년이 아닌 1799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朝鮮王朝實錄』이나 『日省錄』 등 왕실의 기록을 살펴보면, 세화는 대체로 신년이 되기 전에 진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도 5 김홍도, 「해암타어(海巖打魚)」, <풍속도병(風俗圖屏)> 중, 1795년, 지본담채, 100.6×34.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6 김홍도, <마상청앵(馬上聽鶯)>, 117.2×52.0cm, 간송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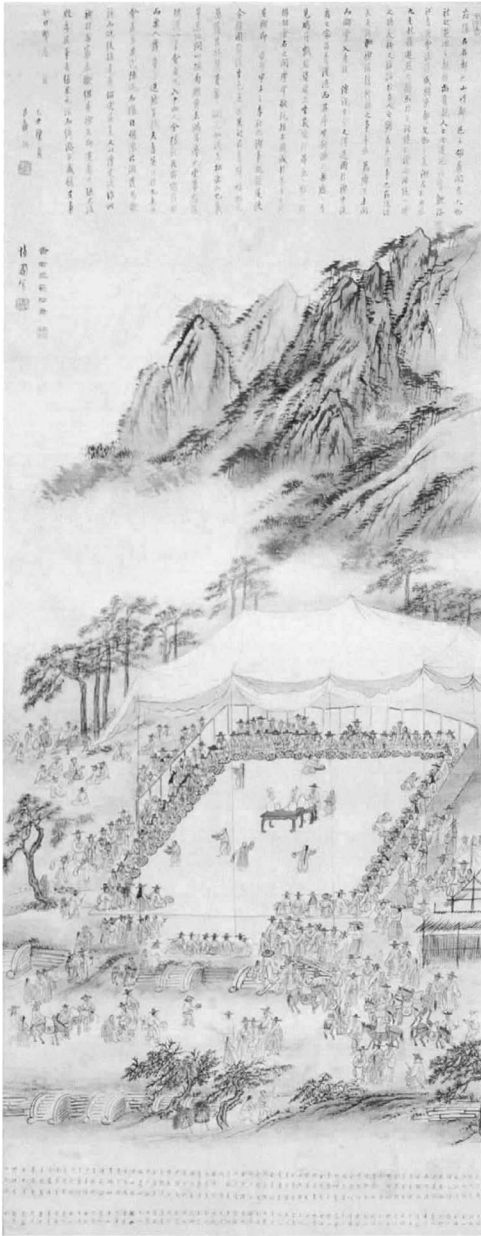


도 7-1 「가가유림(家家有廩)」.



도 7-2 「총탕맥반(葱湯麥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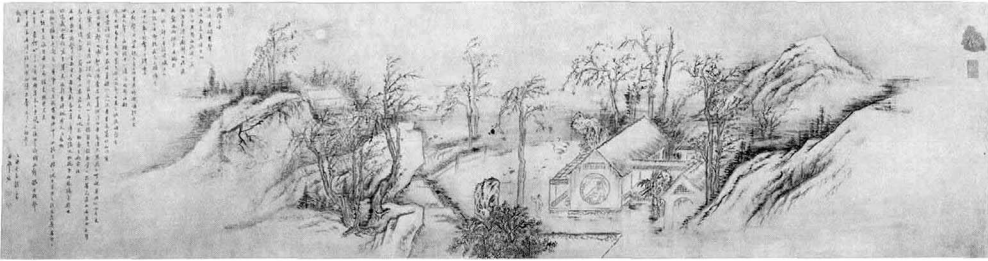
도 7 김홍도, <주부자시의도(朱夫子詩意圖)>, 1800년, 견본담채, 각125,0×40,5cm,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도 8 김홍도, <기로세연계도(耆老世聯契圖)>, 1804年, 견본답채, 137.0×53.3cm, 개인 소장.

이는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1795년작 <풍속도팔첩병(風俗圖八疊屏)>(도5, 11~12)에서도 나타난다. 물론 이 두 그림이 다른 장르이며, 수요자 또한 달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풍속도팔첩병> 중 「수운엽출(水耘饑出)」(도11)과 같은 작품을 보면, 근경과 중경의 활동하는 인물을 강조했으며 원경을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등 <서성우렵>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부자시의도>를 살펴보면 이와는 다른 모습이 보인다. 「가가유름(家家有廩)」(도7-1)이나 「총탕맥반(葱湯麥飯)」(도7-2)을 살펴보면 그림의 주제와 상관없는 산수까지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배경을 이루는 산과 바위의 필선에서도 나타난다. <서성우렵>에 보이는 부드러우면서도 느슨한 필선 대신, 강하고 날카로우면서도 직선적인 필선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물론 이 작품들은 각각 진경산수화와 풍속화, 관념산수화라는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점은 있다. 그러나 이미 김홍도 후기 회화의 특징 중 하나로 불필요한 부분을 간략화 시키는 경향이 있음은 밝혀진 바 있다.⁵ 반면 <주부자시의도>와 비슷한 시기이거나 조금 늦은 시기로 생각되는 <고사인물도(故事人物圖)>(간송미술관 소장, 도17) 8폭에서도 주제뿐만이 아니라 배경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1800년 이후 김

⁵ 진준현, 위의 책, pp. 13~71.



도9 김홍도, <추성부도(秋聲賦圖)>, 1805年, 지본담채, 56.0×214.0cm,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도10 김홍도, <서성우렵(西城羽獵)>, 1796年, 견본담채, 97.7×41.3cm,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홍도 작품에서는 이전과는 달라진 작화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경향은 <삼공불환도>에도 잘 나타나 있다. <주부자시의도>에 보이는 필선만큼 강하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산과 바위의 묘사에는 강한 필선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화면 우측을 산으로 막았으며, 가옥의 모습을 사실적이고 꼼꼼하게 표현하는 등, 중심이 되는 주제를 강조를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특히 배경의 요소에 불과한 바위를 강한 필선으로 크게 배치하여 강조하는 등 주제 못지않게 배경 산수를 중시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처럼 산수를 중시하는 태도 때문에 <삼공불환도>가 큰 병풍임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되는 인물 묘사는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심인물과 사건을 클로즈업해서 표현하여 상대적으로 주제를 강조했던 젊었을 때의 화풍과도 다르며, 주제와 상관없는 배경들을 과감히 생략하던 후반기 화풍과도 분명 다른 면모이다.

한편 <삼공불환도>에 나오는 도상들은 김홍도의 풍속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김매는 장면과 새참을 들고 오는

장면은 1795년 작 <풍속도판첩병>(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 「수운업출」(도11) 및 기타 경작도(耕作圖)류에서 흔히 보이는 도상이며, 7폭에 나오는 나룻배의 돛 이미지와 나귀를 탄 인물 역시 같은 병풍의 「진두과객(津頭過客)」(도12) 등에 나오는 모티프이다. 또한 6폭 상단에 보이는 소를 탄 인물의 모티프도 김홍도의 다른 풍속인물화에 흔히 나오는 소재이다. 즉 이러한 도상들은 김홍도가 잘 그렸던 풍속화와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인공의 일상을 주제로 한 도상에는 기존 인물화에서 등장하는 도상이 보인다. 3폭 상단에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고 앉아 있는 인물은 기본적으로 관조도, 관매도류의 그림에서 흔히 보이는 도상이며, 정자에 앉아 연못의 거위를 바라보는 것은 왕희지관아도류의 도상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마당에 학과 사슴을 풀어 놓은 도상은 기존 산수인물화에서 속세를 벗어나 사는 은자의 모습을 상징하는데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즉 <삼공불환도>는 1800년 이후 새로운 화풍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며, 김홍도는 새로운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자신이 즐겨 사용했던 여러 풍속화 도상들과 기존 관념 산수인물화의 도상을 이용하여 이 그림을 제작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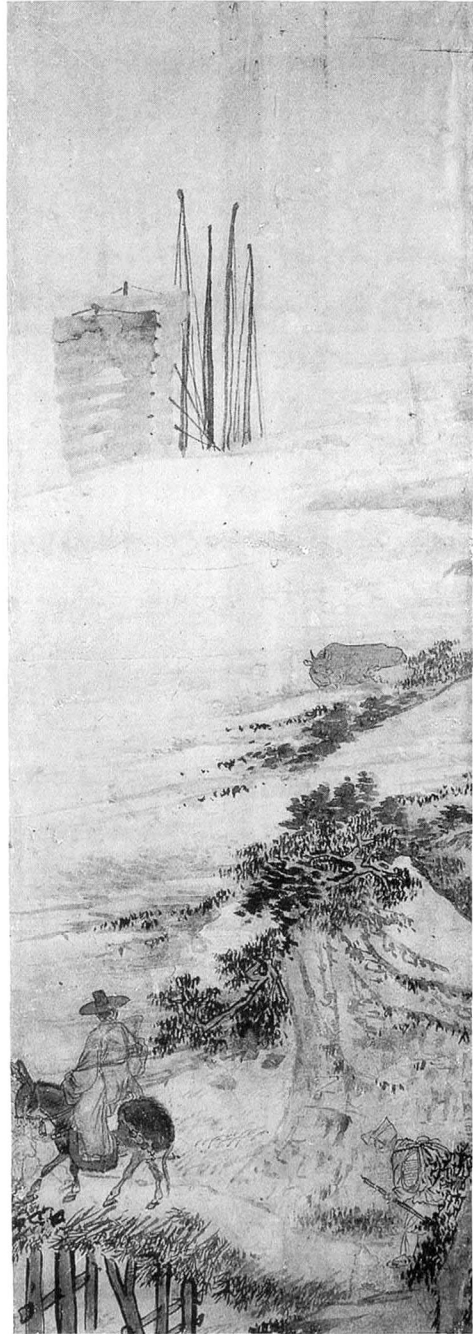
3. <삼공불환도>의 題跋에 나타난 인물 분석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삼공불환도>에 나타난 제발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제발을 쓴 사람은 홍의영으로, 앞부분에는 중장통의 「낙지론」을 쓰고 뒤에 <삼공불환도>의 제작 배경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계명 제작과 관련된 인물들이다. 제발에는 총 4명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홍의영과 유후 한공(留後韓公), 총제(摠制)와 주판(州判)이 그들이다. 여기서 총제와 주판은 누구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유후 한공에 대한 추정 가능하다. 유후는 대개 유수(留守; 正2品)를 뜻하는 것인데, 당시 유수로 근무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 중 한씨는 2명이 있다. 첫째로 한만유(韓晩裕, 1746~1812)가 강화부 유수(江華府留守)가 되었다는 기사가 실록 순조 1년 5월 28일조에 나오며, 같은 해 9월 3일에는 한용구(韓用龜, 1747~1828)를 수원부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는 기사가 나온다.⁶ 그러나 제발에서 “요속(僚屬: 부하)들에게 나누어주었다”는 기록을 통해 한용구가 “유후

6 각각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만유(韓晩裕)를 강화부 유수(江華府留守)로 삼았다.(以韓晩裕爲江華府留守.)”, 『朝鮮王朝實錄』純祖 1年 辛酉 5月 28日條. “이인수(李仁秀)를 총용사로, 한용구(韓用龜)를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以李仁秀爲摠戎使, 韓用龜爲水原府留守.)”, 『朝鮮王朝實錄』純祖 1年 辛酉 9月 3日條. 오주석은 유수 한공을 한만유로만 추정을 했으나, 필자가 조사해본 결과 그림이 그려진 당시 한만유 뿐만 아니라 한용구도 유수로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주석, 앞의 책, p. 213 참조.



도 11 김홍도, 「수운업출(水耘齧出)」, <풍속도병(風俗圖屏)> 中, 1795年, 紙本담채, 100.6×34.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12 김홍도, 「진두과객(津頭過客)」, <풍속도병(風俗圖屏)> 中, 1795年, 紙本담채, 100.6×34.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공”임을 알 수 있다.⁷ 실제로 한용구는 수원부유수의 직책을 받기 전 사헌부 대사헌에 제수되었다는 기록이 있다.⁸ 당시 홍의영은 사간원 정언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들을 모두 대간(臺諫)이라 불렀던 당시의 제도를 생각하면 제발에 “요속”이라 칭한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삼공불환도>는 한용구의 주도로 비롯된 회사(繪事)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용구의 경우 김홍도는 물론 다른 화원들과 관련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이 때문에 한용구가 어떻게 김홍도에게 그림을 의뢰하게 되었는지는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다. 그러나 정황상 한용구는 당시 여러 화가들과 교유관계가 있었던 홍의영을 통해 김홍도의 <삼공불환도> 제작을 비롯한 회사에 참여시켰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는 회사를 주관했던 한용구나 그림의 주인인 주판이 쓰지 않고 홍의영이 <삼공불환도>의 제발을 썼다는 점에서도 추정할 수 있다. 즉, 순조의 수두 완치를 기념하여 그린 <삼공불환도>를 비롯한 계병 제작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홍의영의 추천으로 김홍도가 한용구를 위해 제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Ⅲ. 김홍도의 새로운 후원자, 홍의영

1. <삼공불환도>의 후원자 홍의영

그렇다면 김홍도와 홍의영은 어떠한 관계였으며, 이 시기에 이르러 갑자기 김홍도의 회화에 나타나게 된 것일까? 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홍의영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근역서화징』에 있는 홍의영의 기록을 보면 높은 벼슬을 하지는 못했으나 서예에 뛰어났으며, 당대 화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⁹ 그런데 홍의영이 출세하지 못했던 이유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정조 7년 5월 3일자 기록이 그것인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한만유는 강화부 유수로 선임되기 이전 관직기록은 1797년 이조참의가 가장 가깝다. 이후 한만유는 형조, 병조판서, 한성판윤 등을 역임했지만 사헌부나 사간원에 근무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8 한용구를 대사헌에 제수한 기록은 『朝鮮王朝實錄』 純祖 1年 辛酉 5月 22日條에 보인다.

9 『權域書畫徵』 「洪儀泳條」, 한국미술연구회 기획, 『국역근역서화징』 하권, p. 788.

지평 서배수(徐配修)가 상소하여 논핵하기를, “홍의영(洪儀泳)과 이동식(李東植)은 모두 역적의 친속으로 성균관의 분관(分館)에 끼여들어갔으니, 강등시켜 예문관의 말단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권점을 주관한 승문원의 여러 사람들에게 관직을 삭탈하는 법을 시행해야 합니다.”하였다. 임금이 상소를 보고 나서 대신에게 몇 촌인가를 물으니, 좌의정 홍낙성이 말하기를, “홍의영은 홍계희(洪啓禧)의 5촌이고 이동식도 이경래(李京來)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신이 그 즉시 여쭙어 바로잡았어야 하는데 간택을 한 뒤로 경연에 나아가지 못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못하였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역적이 어느 시대인들 없겠는가마는, 어찌 홍지술(洪趾述)과 같은 역적들이 있겠는가? 제방이 이리하고 세도가 이리하니 나는 실로 말하고 싶지 않다”하였다….(中略)¹⁰

잘 알려져 있듯이 홍계희는 정조와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노론 벽파의 중심인물이다. 그는 윤급(尹汲) 등과 결탁하여 사도세자(思悼世子, 1735~1762)의 잘못을 고변(告變)하여 사사하도록 한 주동 인물이었다. 그러나 정조가 즉위한 뒤 탄압을 두려워한 두 손자의 정조시해 미수사건으로 두 아들(洪趾海·洪述海) 및 일가가 처형당하게 되는 등 정조대에 이르러 홍계희 가문은 완전히 몰락했다. 따라서 홍계희와 가까운 친척이었던 홍의영은 과거에 급제했음에도 관직은 커녕 당시 승문원 박사로 홍의영을 급제시킨 지덕빈(池德斌), 유헌주(柳憲周)까지 귀양을 가게 되었으며, 홍의영 자신도 섬으로 귀양을 갈 뻔하였다.¹¹ 즉 홍의영은 과거에 급제했음에도 정조대에서는 관직에 나설 수 없는 처지였던 것이다.

그러나 순조대에 이르러 홍의영의 이름이 왕실 기록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1804년 12월 25일 사간원의 정언(正言)으로 있으면서 순조에게 상소를 올리는 기사가 보이는데,¹² 이를 통해 1804년 이전, 즉 순조대 즉위 초반에 사간원(司諫院)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808년에는 경기 암행어사로 나가는 등 순조시대에 이르러 비교적 순탄한 관직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는 정조 사후 수렴청정을 맡았던 정순왕후의 비호 아래 노론 벽파의 인물들

¹⁰ 원문은 다음과 같다.

“洪儀泳, 李東植, 俱以劇逆親屬, 入於國子分館, 宜降付芸館之末。 槐院主圈諸人, 當施刊削之典。” 上覽疏, 問大臣曰: “幾寸乎?” 左議政洪樂性曰: “洪儀泳, 卽啓禧之五寸, 李東植, 亦京來之至親。 臣宜卽筵稟駁正, 而揀擇以後, 未曾登筵, 迄未之果矣。” 上曰: “亂逆何代無之, 而豈有如趾述諸賊者乎? 隄防如此, 世道如此, 予實欲無言矣。” 『朝鮮王朝實錄』 正祖 7年 5月 3日條.

¹¹ 승문원 박사들의 귀양은 『朝鮮王朝實錄』 正祖 7年 5月 23日條., 홍의영은 섬으로 귀양을 보내게 했으나 다음 날로 명을 정지시켰다.

¹² “正言洪儀泳上疏, 以立志, 講學, 主靜, 謹獨四條陳勉, 賜批嘉納。” 『朝鮮王朝實錄』 純祖 4年 甲子 12月 25日條.



도 13 김홍도, 유한지, 홍의영, <병암진장첩(屏巖珍藏帖)>, 1800년, 지본담채, 각 20.0×30.0cm, 개인 소장.

이 정권을 잡기 시작한 것과 관련된다.

한용구 역시 노론 벽파와 가까운 인물로 추정된다. 한용구는 정조대 이조참판, 대사간 등을 역임했으나 이조참의로 재직하는 중 왕명을 어기고 왕을 모독했다는 죄로 삭주에 유배를 가는 등 순탄치 않은 관직생활을 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순조 즉위 후 예조판서, 사헌부 대사헌 등을 거쳐 1805년 좌의정에까지 오르게 되는 등 수렴청정 아래에서 탄탄한 관직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805년 벽파를 비호했던 정순왕후의 죽음 이후 시파가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당시 벽파의 영수이자 우의정이었던 김달순(金達淳, 1760~1806)이 사사(賜死)되는 가운데 연루되어 관직을 사퇴하였다. 이는 한용구 역시 노론 벽파와 관련된 인물이었음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한용구는 <삼공불환도>를 그릴 당시 권력의 실세로 자리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한용구는 김홍도는 물론 다른 화가들과의 교류관계를 찾을 수 없는 인물이다. 이는 <삼공불환도>의 제작 의뢰시 여러 화가들과 교류관계가 있었던 홍의영이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홍의영은 당시 같은 정파이자 실세로 자리 잡고 있던 한용구에게 김홍도를 소개하였고, 김홍도는 홍의영의 추천 아래 순조의 수두 쾌차를 축하하는 큰 규모의 계병 제작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김홍도와 홍의영의 교류 양상

그렇다면 당시 김홍도와 홍의영은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 현재까지 홍의영의 개인 문집이 알려진 바가 없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김홍도 작품에 남긴 홍의영의 화제를 통해 둘 간의 교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홍의영이 남긴 제발이 있거나 관련된 김홍도의 작품은 <삼공불환도> 외에도 『병암진장첩(屏巖珍藏帖)』(1800, 도13), <기रो세련계도>(1804, 도8), <춘경산수도>, <작도(鵲圖)>(도14)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 작품을 살펴보면 대체로 김홍도 말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년작들은 1800년, 1801년, 1804년 등 1800년 이후의 것이 전부이다.



도 14 김홍도, <작도(鵲圖)>, 견본수묵, 27.2×20.0cm,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물론 김홍도가 그림을 업으로 삼아 활동했던 인물이기에 그와 교류했던 인사들이 상당히 많으며, 홍의영도 그 중 하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홍의영이 김홍도말년에 새롭게 등장한 후원자이며, 홍의영의 배경이 이전에 김홍도가 교류했던 인사들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김홍도의 최대 후원자는 표암 강세황(豹菴 姜世晃, 1713~1791)과 정조(正祖)이다. 강세황은 김홍도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으며 화법을 가르쳤고,¹³ 후에 김홍도의 그림에 제발을 써주기도 하였다. 또한 『십로도상첩(十老圖像帖)』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김홍도에게 그림의 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였던 것으로 생각



도 15 강세황, 「발문(跋文)」, 강세황, 김홍도, 『십로도상첩(十老圖像帖)』中, 1790, 지본수묵, 33.5×28.7cm,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¹³ 姜世晃, 『豹菴遺稿』 권4, 「檀園記」, “始也士能垂轡而遊吾門 或獎美其能 或指授畫訣焉…” 「단원기」의 원문과 번역은 진준현, 위의 책, p. 41에서 재인용.

된다. 화첩에 들어있는 강세황의 「발문(跋文)」(도15)에 따르면 신말주(申末舟, 1429~1499 이후)의 후손인 신상렴(申尙濂)이 강세황에게 제작을 의뢰하자 김홍도에게 연결시켜 주었던 기록이 보이는데, 이를 통해 강세황이 김홍도에게 작품 제작을 소개하는 일까지 했음을 알 수 있다.¹⁴ 정조 역시 김홍도의 화원시절에 있어 큰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로, 자비대령화원 녹취재를 면제시켜주었으며, <주부자시의도>에 대해 논하면서 “김홍도를 안지는 오래되었으며, 30년전 어진도사 이후 궁중의 여러 회사(繪事)를 모두 김홍도가 주관하도록 하였다”고 술회하는 등 김홍도를 특별히 대우하였다.¹⁵ 그러나 이들은 각각 1791년과 1800년에 사망하였다. 전폭적인 후원을 해주었던 강세황의 죽음은 김홍도의 일생에 큰 후원자가 없어진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신의 기량을 아꼈던 군주의 죽음은 평생을 화원으로 봉직했던 김홍도에 큰 변화를 주었다. 따라서 김홍도는 자신을 비호하고 후원해 줄 새로운 실력자를 찾을 필요가 생겼던 것이다. 이 와중에 이전 후원자들과 정치적으로 상반된 홍의영과 교유하게 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특히 홍의영의 김홍도 후원은 직접적인 후원뿐 아니라 과거 강세황이 했던 것처럼 주문자와 김홍도를 직접 연결시켜 주는 간접적인 후원도 있었다.

<삼공불환도>의 경우만 아니라 개성 노인들의 잔치를 그린 김홍도 말년의 또 다른 대표작 <기로세연계도>(도8) 역시 제발을 통해 홍의영의 중개로 김홍도가 제작하게 된 것이다. <기로세연계도>에 쓰인 제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略) 또 연계에 참석했던 어른의 후손 집에 남겨진 그림을 얻을 수 있었는데, 채색은 흐려졌지만 그 순서대로 앉아 마시고 잔치하며 즐기는 모양을 역력히 볼 수 있다. (中略) 그리하여 이 계회를 다시 갖게 된 것이 지금 주상 전하 갑자년 9월이었다. 계회의 행사가 끝나게 됨에 드디어 단원 김홍도로 하여금 그 광경을 그려내도록 하고 나에게는 기(記)를 써 달라고 부탁하였다.¹⁶

¹⁴ 『십로도상첩』의 전문과 번역은 임재완 역주, 삼성미술관 Leeum 고미술 학예연구실 편집,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古書畫 題跋 解說集』, 2006, pp. 8~29 참조.

¹⁵ 정조의 김홍도에 대한 평가는 『弘齋全書』 卷7 詩3 「謹和朱夫子詩八首」에 나온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金弘道工於畫者。知其名久矣。三十年前圖眞。自是凡屬繪事。皆使弘道主之。畫師例於歲初。有帖畫寫進之規。今年弘道以熊勿軒所註朱夫子詩。畫爲八幅屏風。深得聚星亭餘意。既書原韻。附寫和章。以爲當日之資云爾。” 吳桂錫, 앞의 책, p. 211에서 재인용.

¹⁶ 본문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前略) 又得遺圖於稷中後裔之家 丹青漫漶 而其序坐飲嘗讌之樂 歷歷可見 (中略) 於是乎更修是 稷即 堂宇甲子之季秋也 稷事即罷 遂使金檀園點綴生色 屬余爲記.

기로세연계도 제발의 전문과 해석은 『檀園 金弘道 탄신 250주년 기념 특별전』, 1995, p. 256에 오주석이 쓴 <기로세연계도> 해설에 번역되어 있다.

글을 살펴보면 잔치를 주관한 개성의 인물들(張後殷, 張允誼)이 계회를 갖기 전 미리 홍의영에게 청탁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홍의영이 이 행사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또 김홍도로 하여금 이 행사를 그림으로 그리도록 연결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사례들은 홍의영이 김홍도 말년에 강세황 못지않게 중요한 후원자 역할을 했음을 알려준다. 특히 <기로세연계도>가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었다면, <삼공불환도>는 경제적인 면 외에 정치적 목적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을 의뢰한 한용구는 노론 벽파와 관련된 인물로 1805년 정승의 반열에 오르는 등 순조대 이후 탄탄한 관직생활을 이어왔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즉 <삼공불환도>를 비롯한 계병 제작은 김홍도가 홍의영을 통해 정조 사후 새롭게 떠오른 노론 벽파의 실세들과 교유하게 된 상황을 알려준다.

IV. 후원자 홍의영과 김홍도 말기 화풍의 변화

1. 홍의영의 회화관

한편 홍의영의 제발이 들어있는 김홍도의 작품을 보면 대부분 문인취향이 반영된 그림들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잘 알려져 있듯이 1800년대 이전 김홍도는 사물을 곡진하게 그려낸 것으로 저명했던 화가이다. 강세황의 「檀園記」와 「檀園記 又一本」에서 언급되어있듯이 김홍도는 “조선 사람들의 풍속을 잘 그렸”으며, “한번 그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두 손뼉을 치며 신기하다고 외칠” 정도로 사실주의적 화풍으로 유명했던 인물이다.

반면 홍의영은 현재 남아 있는 문집이나 자신의 회화관을 표출한 글이 없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화제(畫題)를 쓴 작품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문인 취향이 강하게 반영된 관념적인 산수, 인물화를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김득신의 경우에는 <대양일출도(大洋日出圖)>(도16)에 화제를 남겼는데, 이 작품은 김득신의 여타 작품과 달리 전통적인 관념 문인화의 취향을 강하게 보여준다. 또한 화원화가 중 전통 문인 취향의 화풍을 구사했던 이인문과도 친했다. 특히 홍의영은 당대 전통적 사의산수화의 최고로 평가받았던 이인문과 상당히 친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홍도, 홍의영, 이한진 등이 합작한 『병암진장첩』에는 후에 이인문이 완상하고 인문을 남겼는데, 모두 홍의영의 글씨에만 찍혀 있다는 점은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돈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삼공불환도>를 그렸을 때도 홍의영의 회화적 취향을 엿볼 수 있다. 서론에서도 언급



도 16 김득신, <대양일출도(大洋日出圖)>, 지본담채, 92.8×48.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했지만 ‘삼공불환’은 후한(後漢)의 대표적인 은자인 엄광(嚴光)을 기리는 시인이다. 그런데 이 시는 일반적으로 동강조어(桐江釣魚)의 주제로 많이 그려졌다. 김홍도의 다른 작품에도 <동강조어도>(도18)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김홍도가 이 주제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김홍도는 일반적인 시의 도상 대신 지금껏 잘 나타나지도 않았던 주제인 「낙지론」과 비슷하게 그려내었다. 이는 김홍도의 <삼공불환도>를 가지기를 원했던 모(某) 주판(州判)의 요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김홍도에게 계병 제작을 의뢰했던 한용구 이하 그룹에서 각각 김홍도에게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요구하였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홍의영이 하(夏) 우왕(禹王)의 치수(治水) 사업을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우치수도>를 선택하였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신우치수 역시 조선 시대 회화로 유행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유교적 의미에서 신우치수는 요순(堯舜)과

더불어 최고의 성군(聖君)으로 일컬어지는 우왕의 업적을 그린 중국 고대 역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길상이나 장식적인 의미가 강했던 <화궐영모도>나 개인의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희구하는 「낙지론」을 도해한 그림과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즉 홍의영은 중국 고사를 바탕으로 한 사의적 주제의 문인 취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홍의영은 단순히 사의적 취향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김홍도와 큰 교류가 없었던 시절에도 김홍도의 회화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의영은 이인문과 더불어 서화합벽첩인 『한중청상첩(閑中淸賞帖)』을 제작했는데, 여기에 이인문은 김홍도의 영향을 받은 풍속화를 그렸다. 이는 홍의영이 당시 유행하고 있는 김홍도의 풍속화

풍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홍의영의 예술관은 문집이나 미학관에 대해 언급한 글이 남아 있지 않아 더 이상의 추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현존하고 있는 홍의영의 회화관은 전통적인 관념적인 주제의 문인 취향이 강한 태도를 보이면서 김홍도로 대표되는 속화(俗畵)와 같은 새로운 화풍에 대해서도 주목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 김홍도 말기 화풍의 변화와 홍의영

이러한 홍의영의 취향은 김홍도 말기 화풍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시사하는 바 크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의영이 화제를 남긴 김홍도의 그림은 주제에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문인 취향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심지어 개성 노인들의 계회를 주제로 한 <기로세련계도>에서도 주제 못지않게 후경 산수를 강조하여 김홍도 풍속화와 산수인물화적인 요소를 동등하게 강조하고 있다.

<삼공불환도>의 경우 단순히 「조대」나 「낙지론」을 시각화한 고사인물화가 아니라 산수가 강조된 한 폭의 관념적인 산수인물화라고 할 수 있다. 도상적인 면에 있어서도 전통 인물화의 주제였던 관조(觀鳥)나 왕희지관아의 도상을 사용하거나 사슴, 학과 같은 은자를 상징하는 동물들을 그려 넣음으로써 관념적인 산수인물화의 요소를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 김홍도는 이전에 자신의 풍속화에 있던 요소들을 차용한 도상도 선택하여 넣었다. 물론 집안 주인공의 도상은 모두 전통적인 산수인물화의 도상을 따르고 있으며 주인공을 돕는 시종이나 집밖의 속세의 인물들의 표현에서만 풍속 도상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김홍도의 전통적인 산수인물화의 도상에 대한 관심은 만년의 또다른 대작으로 평가받는 <고사인물도(故事人物圖)>(간송미술관 소장, 도17) 8폭에서도 잘 나타난다. ‘단구(丹邱)라는 만년의 관서를 사용했으며, <기로세련계도> 등과 흡사한 산수의 표현을 통해 1800년 이후 그린 것이 확실한 이 작품은 고사인물화임에도 인물보다 산수를 강하고 날카로운 필선으로 강조하는 등 전형적인 말기 화풍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제 역시 문인 취향의 관념적인 내용으로, 김홍도의 그림이 사실적이고 생생한 표현을 중시하는 것에서 사의적이고 문인 취향의 관념 산수인물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김홍도의 화풍이 변화하는 시점이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들을 잃고 새로운 후원자를 모색하고자 하던 시기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홍도는 이 시기 새로운 후원자로 부각되기 시작한 홍의영의 취향과 어울리는 그림을 그렸으며, 홍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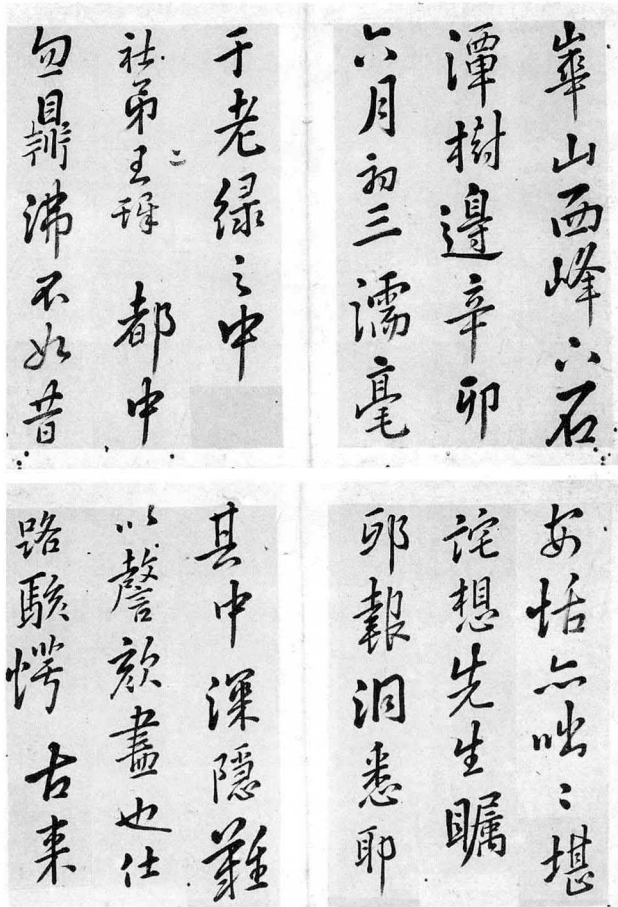
영은 자신이 속해 있는 정치세력이자 순조 초기 새로운 세력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노론 벽파에 김홍도를 소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삼공불환도>는 그 시작점에 제작된 그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도 17 김홍도, 「무이귀도(武夷歸棹)」, <고사인물도(故事人物圖)> 8폭 중, 지본담채, 111.9×52.6cm, 간송미술관 소장.



도 18 김홍도, 「동강조어(桐江釣魚)」, <고사인물도(故事人物圖)> 8폭 중, 지본담채, 111.9×52.6cm, 간송미술관 소장.



도 19 「왕탁간독(王鐸簡牘)」, 『단원유묵첩(檀園遺墨帖)」中,
지본묵서, 각 29.0×19.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V. 결론

물론 김홍도 말기 화풍의 변화가 홍의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확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 1800년을 즈음해서 김홍도의 화풍에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김홍도가 홍의영을 위시한 노론 벽파들과 가까워진 것은 분명하다. 이는 김홍도가 당시 떠오르던 세력인 노론 벽파를 의식하고 화풍을 바꾸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김홍도의 말기 화풍과 도상의 변화는 격변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 김홍도가 새로운 후원자를 모색하는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현재까지 김홍도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김홍도의 정치적 상황 변화

에 대한 인식과 적응과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정조 사후 만년의 어려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김홍도가 순조 즉위 후 바로 자비대령화원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4년간 계속 면제받고 있었다는 것은 순조 초까지도 김홍도가 화원 내에서 특권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805년 1월, 정순왕후의 갑작스런 죽음을 접한 김홍도가 왕탁(王鐸, 1592~1652)의 편지를 임모하여 쓴 것은 정치적 상황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김홍도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도19).

서울이 갑자기 시끌벅적하니 옛날 조용할 때만 못합니다. 뜻밖에 놀라움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깊고 은밀한 내용은 몇 마디 말로 다하기 어렵습니다. 벼슬살이에 놀랄 일 많음이 예로부터 이러합니다. …(後略)¹⁷

정순왕후의 죽음에 대해 그는 “뜻밖에 놀라움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말을 빌어 언급하였다. 이는 1800년 이후 김홍도가 모색했던 후원관계에 대해 시사하는 바 크다. 김홍도는 자신의 새로운 후원자로 부상했던 홍의영을 위시한 노론 벽파 인물들에게 닥칠 정치적 위기를 인식하고 왕탁의 글을 빌어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1803년 12월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그치게 되고 바로 다음해 자비대령화원 녹취재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 등 김홍도는 이전까지 화원 내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특권들을 상실해간다. 이는 김홍도가 새로운 후원자였던 벽파의 몰락과 함께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1805년에 5월 자비대령화원을 마지막으로 김홍도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 시기쯤 김홍도는 화원을 은퇴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은퇴 후 아들의 월사금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에까지 빠지게 된다. 김홍도의 마지막 기년작(紀年作)인 <추성부도>(도9)는 실의와 몰락을 상징하는 「추성부」를 그린 것으로, 규모가 꽤 큰 그림임에도 누구에게 그려준 그림이 아니라는 것은 김홍도 말년의 심정을 의미심장하게 알려주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추성부도>를 비롯하여 노론 벽파 정권 아래 김홍도의 활동에 대해서는 차제에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겠다.

*주제어(Key Words)_ 김홍도(Gim Hongdo), 삼공불환도(Samgongbulhwando), 홍의영(Hong Uiyeong)
낙지론(Nakji-ron), 노론(Noron)

■ 투고일 2012년 5월 4일 | 심사개시일 2012년 9월 7일 | 심사완료일 2012년 10월 22일 ■

¹⁷ 『단원유묵』, pp. 30~32.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金良驥 編, 『檀園遺墨帖』

임재완 역주, 삼성미술관 Leeum 학예연구실 편집,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古書畫 題跋 解說集』, 삼성문화재단, 2006.

姜景勳, 「重菴 姜彝天 文學研究 - 18세기 近畿 南人·小北文壇의 展開와 관련하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_____, 「표암 강세황의 가문과 생애」, 예술의 전당 서울서예박물관, 『豹菴 姜世晃』, 2003, pp. 409~413.

강관식,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 상·하, 돌베개, 2001.

고동환, 『조선후기 상업발달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8.

金榮鎮, 「孝田 沈魯崇 文學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박용만, 「안산시절 강세황의 교유와 문예활동」, 예술의 전당 서울서예박물관, 『豹菴 姜世晃』, 2003, pp. 388~392.

邊英燮, 『豹菴姜世晃繪畫研究』, 一志社, 1988.

宋泰沅, 「菴齋 金得臣의 繪畫 研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90.

安輝濬, 『韓國繪畫史』, 일지사, 1980.

_____, 감수, 『風俗畫』, 『韓國의 美』 19권, 중앙일보사, 1985.

_____, 『한국 회화사 연구』, 시공사, 2000.

吳柱錫, 『檀園 金弘道 - 조선적인, 너무나 조선적인 화가』, 열화당, 1998.

俞弘濬, 「檀園 金弘道 研究 노트」, 국립중앙박물관, 『檀園 金弘道』, 1990, pp. 109~122.

李源福,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 병풍 일례(一例) - 또 한 틀의 <행려풍속도병(行旅風俗圖屏)>」, 미술저널社, 『古美術저널』 9·10, 2004. 9, pp. 46~53.

鄭炳模, 「“佩文齋耕織圖”의 受容과 展開 - 특히 朝鮮朝 後期 俗畫에 미친 影響을 中心으로」,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석사학위논문, 1983.

_____, 『한국의 풍속화』, 한길아트, 2000.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 일지사, 1999.

홍선표, 『朝鮮時代 繪畫史論』, 文藝出版社, 1999.

국문초록

송대(宋代) 시인 대복고(戴復古)의 시 「조대(釣臺)」에 나오는 구절로 제목을 삼고, 후한(後漢) 중장통(仲長統)의 「낙지론(樂地論)」을 제발로 쓴 〈삼공불환도〉는 김홍도 말기의 대표적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작품에 대해 김홍도 후기의 풍속화와 산수가 융합된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삼공불환도〉가 중요한 것은 1800년 이후 김홍도의 화풍에 큰 변화가 생긴 시점에 그려진 작품인 동시에, 지금까지 주제로 잘 쓰이지 않았던 「낙지론(樂地論)」을 그렸으며, 이 회사(繪事)의 내용을 기록한 간재 홍의영의 제발이 등장하고 있어 그림의 제작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1801년이라는 기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800년 정조(正祖, 1752~1800, 재위 1776~1800)의 갑작스런 죽음과 순조(純祖, 1790~1834, 재위 1800~1834)의 즉위, 정순왕후(貞純王后, 1745~1805)의 수렴정청 등 일련의 격변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려진 대작이기 때문이다.

〈삼공불환도〉의 제작 양상과 관련하여 본고(本稿)에서는 간재 홍의영(良齋 洪儀泳, 1750~1815)에 주목해 보았다. 홍의영은 이인문, 김득신 등 당시 여러 이름난 화원들과 친밀한 교유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들의 그림에 많은 화제(畫題)를 써 주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그는 김홍도의 작품에도 제발을 남기곤 하였다. 그런데 홍의영과 김홍도가 교류한 시점이 1800년 이후 김홍도 말년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이는 김홍도 주변 상황과 관련이 있다. 김홍도는 1800년에 이르러 자신의 최대 후원자였던 정조를 잃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김홍도는 당시 떠오르던 세력인 노론 벽파를 의식하고 화풍을 바꾸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물론 김홍도 말기 화풍의 변화가 홍의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확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 1800년을 즈음해서 김홍도의 화풍에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김홍도가 홍의영을 위시한 노론 벽파들과 가까워진 것은 분명하다. 이는 김홍도가 당시 떠오르던 세력인 노론 벽파를 의식하고 화풍을 바꾸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비단 〈삼공불환도〉 뿐만 아니라 김홍도 말기의 대표작들로 남아 있는 다른 여러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알 수가 있다. 1800년 이후 김홍도의 기년작들을 살펴보면 이전과는 달리 산수를 강조하고, 전통 남종인물화의 도상들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당시 남종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홍의영과 노론 벽파 계열의 인물들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정황은 김홍도가 순조 즉위 후 바로 자비대령화원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4년간 계속 면제받고 있었다는 사실과도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김

홍도가 순조 초까지도 화원 내에서 특권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803년 12월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그치게 되고 바로 다음해 자비대령화원 녹취재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 등 김홍도는 이전까지 화원 내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특권들을 상실해간다. 이는 김홍도가 새로운 후원자였던 벽파의 몰락과 함께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즉 김홍도의 말기 화풍과 도상의 변화는 격변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 김홍도가 새로운 후원자를 모색하는 과정에 나타난 것이며,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1801년작 <삼공불환도>라 할 수 있다.

Abstract

Samgongbulhwando (三公不換圖) by Gim Hongdo:
Changes in Gim Hongdo's Paintings after 1800 and His
Relationship with Hong Uiyeong

Jo, Jiyeon *

Samgongbulhwando(三公不換圖, *The Life of Recluse Exceeds a Life in Pursuit of Government Ranks*)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works from the late career of Gim Hongdo. Furthermore, the significance of this work is heightened because it was painted after 1800, when Gim Hongdo's style changed drastically, and also because it bears colophons written by Hong Uiyeong. He was a supporter of Gim Hongdo, but it is crucial to note that the two only became close around 1800, towards the end of Gim's career. Notably, 1800 also marked the death of Gim's supreme patron, King Jeongjo. Gim's artistic style underwent some decisive changes around the same time, and I argue that these changes were driven by Hong Uiyeong, who emerged as Gim Hongdo's new patron. The changes in Gim's style and iconography, as exemplified by *Samgongbulhwando*, were the result of his search for a new patron in his final years amidst a turbulent political environment.

* Leeum, Samsung Museum of Art